남의 말에 현혹돼 속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㉞ 정법과 사법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쩌다 노장들의 입속말을 듣고 이것이 참된 도라 여겨 불가사의하다 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라 감히 저 노숙(老宿) 도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니. 눈먼 바보들이여! 그대들 일생을 이따위 견해를 만들어 멀쩡한 두 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느니라. 춥다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꽁꽁 언 얼음 위의 당나귀나 망아지 같구나. 그러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헐뜯을 수 없나니 구업이 생길까 두렵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무릇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감히 부처와 조사를 헐뜯고 천하를 시비하며,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철없는 소아들을 꾸짖고 욕하며, 역순(逆順)의 경계를 향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찾고자 했느니라. 그래서 나는 12년 동안을 될 만한 한 개의 업성(業性)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겨자씨만큼도 얻지를 못했느니라.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봐 불안해 편하지 못했을 것이니라. 자고로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해 쫓겨나곤 했으나 쫓겨난 뒤에 비로소 귀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느니라.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인정해 준다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한 번 포효하면 여우의 뇌가 찢어진다' 했느니라."

'도가 같아야만 알아볼 수 있다(同道方知)'는 말이 있다.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은 수행이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하수들은 상수의 경지를 모른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수(正手)인지 모르고 잘 속게 된다고 한다.

이 장에서 임제가 하는 말은 공부하는 사람이 남의 말에 현혹되어 속지 말라는 말이다. 내 공부가 빈약하면 남의 말에 도 잘 속고 그릇된 지견을 만들어 사견에 빠지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임제는 이런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이라 혹평을 하고 있다. 법을 바로 볼 줄 모르니까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이다.

대혜 종고의 어록인 〈서장(書狀)〉에도 '할안한(瞎眼漢)'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제록〉의 '할루생(瞎屢生)'과 같은 말로 눈먼 사람이라는 말이다. 눈먼 사람이 해를 못 보는 것처럼 정법을 바로 보는 바른 눈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말이다. 대혜는 간화선(看話禪)이라야 옳은 수행법이라 주장하고 묵조선(默照禪)을 비판하면서 묵조사사배(默照邪師輩)의 무리들이 남의 눈을 멀게 한다 하였다. 또 사법(邪法)을 가르치는 사사배(邪師輩)들이 도마죽위(稻麻竹葦) 같다 하였다. 중국 선종사에서 5종으로 나눠진 선종들이 각각 내세우는 종풍(宗風)에 차이가 있어 온 것처럼 종지를 바로 세워 정법 선양을 하는 것도 방편이 달랐다.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고 견성(見性)을 목적으로 하는 선(禪)이지만 임제는 임제 가풍이 있고 스승 황벽은 황벽 가풍이 있는 것이다. 시대와 곳에 따라 방편상의 응용 실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임제의 시대인 9세기와 대혜의 시대 12세기에도 이와 같은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선수행의 세계에도 언제나 정법과 사법의 논란이 끊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임제의 말 가운데 서글픈 독백이라 할 수 있는 말도 나와 있다. 공부인을 찾기 위하여 12년 동안 눈여겨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임제가 찾는 공부인은 무엇보다 불조(佛祖)를 능가할 수 있는 기백이 있는 사람이다. 앞 장에서 말한 '곳에 따라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과감히 자기 허울을 벗고 진실한 성품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선가구감〉은 임제의 가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임제의 가풍은 맨손에 단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고금의 현요(玄要)를 가리고 용과 뱀을 주인과 손님으로 시험한다. 금강보검을 쥐고 나와 대와 나무에 붙은 정령을 쓸어내고 사자의 위엄을 떨쳐 여우나 이리의 간을 찢는다. 임제종의 가풍을 알려 하는가?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평지에 파도가 일어나느니라." 〈조계종 고시위원장〉

색즉시공 공즉시색



세상 속 경전읽기

㉞ 반야심경

독실한 불자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독송하게 되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은 한문 번역본도 여러 가지이고 해설서도 많다. 우리가 의식을 행할 때 삼귀의(三歸依) 다음에 봉독하는 것은 당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다.

〈반야심경〉의 한역(漢譯)들은 크게 약본(略本)과 광본(廣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본이 일반적인 불경의 형식인 6성취[六成就, 곧 신성취(信成就)인 '如是'·문(聞)성취인 '我聞'·시(時)성취인 '一時'·주(主)성취인 '佛'·처(處)성취인 在某處·중(衆)성취인 '與衆若干人俱']의 통서(通序)를 갖추어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약본은 6성취가 생략되고, 바로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또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 시작되고 있다.

현장 번역본과 구마라집(鳩摩羅什) 번역의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은 약본이다. 법월중(法月重) 번역의 〈보편지장반야바라밀다심경(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그리고 반야(般若)와 이언(利言) 공역본, 지혜륜(智慧輪) 번역본, 법성(法成) 번역본인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들과 시호(施護) 번역의 〈불설성불모반야바라밀다경(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經)〉은 광역본이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짧은 경문이지만,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심요(心要) 법문으로, 반야지혜와 신비한 주문을 함께 겸비해서, 현장이 구법을 위해 천축을 가는 험난한 길에서 위기 때마다 지심으로 독송해 악귀들을 물리치고 길이 저절로 열리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반야심경〉 모든 부분이 핵심이지만, 그 중 핵심은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空)이 색(色)과 다르지 않아, 색(色)이 곧 공(空)이요, 공(空)이 곧 색(色)이니, 마음[受想行識]도 또한 그러하니라."

〈般若波羅蜜多心經 T0251_.08.0848c07-c09〉

금타 화상의 약해다.

"색(色)이란 공성(空性)의 여여상(如如相)으로서 색체(色體)가 별유(別有)함이 아니오. 공체(空體)의 환화(幻華)일새 색(色)이 공(空)과 불이(不異)하고 공(空)이 색(色)과 불이(不異)하여 공(空) 그대로 색(色)이오. 색(色) 그대로 공(空)이라 사온(四蘊)도 또한 그러하니"

〈金剛心論 第1編 第1章 般若波羅蜜多心經의 讀解〉

색[色. 곧 물질]은 물질적 장애[質礙]가 있고 변하고 부서지는 것[變壞]이다. 따라서 항상 변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이며, 마음대로 할 수[常一主宰] 없는 공한 성품[空性]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항상 변하지 않는 아체(我體)가 없는 공한 성품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相]'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본체[色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풀밭에 누워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공중에 작은 티끌들이 무수히 있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맑은 공중에 티끌꽃이 없는 것처럼, (色은) 공한 바탕[空體]의 헛꽃[幻華]일 뿐이다. 그래서 색(色)과 공(空)이 다르지 않고, 색(色)이 곧 공(空)이며,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니, 오온[五蘊. 물질과 마음] 모두가 곧 공(空)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은 연기(緣起)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금타대화상의 〈수묘게(數妙偈)〉 중에 다음 구절을 음미할 일이다.

"인연따라 일어나면 있는 것 같고 인연따라 소멸하면 없는 것 같네! [연기약존연멸약망(緣起若存緣滅若亡)]"

〈金剛心論 第4編 宇宙의 本質과 形量, 卷頭(數妙偈)〉

연기(緣起)하면 색(色)이라 하고, 연멸(緣滅)하면 공(空)이라 하는 것이다. 기멸(起滅)이 둘이 아니니[不二]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20

염불과 선의 만남

대화(dialogue)란 서로 다른 두 가지(dia) 방식(logos)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기본적으로 통하기가 쉽지 않다. 진보와 보수 간에 소통이 어려운 이유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양식이 만나서 묘하게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살펴볼 염불과 선이 그렇다. 염불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낳고자 하는 타력적 신앙이지만, 선(禪)은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 깨침에 이르는 자력적인 길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수행체계가 어떻게 갈등이 아니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낸 것일까?

흔히 정토신앙은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유행하는 신앙이라고 일컬어진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입멸 후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바른 가르침이 펼쳐지는 정법시대(正法時代)와 정법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되는 상법시대(像法時代), 그리고 오탁악세(五濁惡世)의 말법시대가 그것이다. 세상이 오염되고 중생들이 죄를 많이 짓는 말법시대에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존하는 염불수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정토에 태어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정토신앙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움직임 또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미타불과 서방정토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성(自性)이라고 인식하였다.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아미타불과 서방정토를 내 마음으로 압축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는 곧 '마음이 부처(心卽佛)'라는 선불교의 핵심을 염불의 입장에서 수용한 것이다. 선(禪)에서도 정토와 아미타불이 자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된다.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보조 지눌이나 태고 보우(太古 普愚, 1301~1382), 서산 휴정(西山 休靜,1520~1604) 등도 이러한 입장에서 선과 염불의 하모니를 연출하였다.

그런데 염불과 선을 '하나'로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수행체계가 있다. 염불선(念佛禪), 혹은 염불화두선(念佛話頭禪)이 바로 그것이다. 이 수행법은 한국불교 근현대의 고승으로 알려진 청화(靑華, 1924~2003) 선사가 주창하면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과 아미타불을 염하는 수행체계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묘하게 소통(疏通)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염불선의 핵심은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하고 스스로 돌이켜보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염불 자체가 화두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염불하는 자신을 간절하게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성미타가 눈앞에 나타나 견성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불선은 〈육조단경〉 덕이본으로 유명한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1308)의 영향이 크다. 그는 여말선초 우리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반조(返照)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염불이 곧 화두가 되는 것이다. 고려말 태고 보우 역시 당시 유행하던 '무(無)'자 화두 대신 아미타불을 참구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수행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임을 깨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서산대사는 염불과 선이 하나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심법요초(心法要抄)〉에서 "참선이 곧 염불(參禪卽念佛)이며, 염불이 곧 참선(念佛卽參禪)"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염선회통(念禪會通)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특징을 회통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서로 다른 사상들이 만나서(會)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通)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선(禪)과 교(敎)가 그랬던 것처럼, 염불과 선도 그렇게 만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수준 높은 만남은 상대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 남과 북, 동과 서 등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비록 天秘錄

천지인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땅,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도서 가격 15,000원 |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 영풍문고 각 지점 |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 리브로 각 지점

구리 동원서적 | 대전 보문불교 | 대전 계룡문고 | 대전 중앙출판 | 대구 세원출판 대구 에스디커뮤니 | 울산 처용서림 | 부산 영광도서 | 구미 춘양당 | 창원 창원서적 마산 대신서점 | 전주 홍지서림 | 순천 중앙서점 | 목포 국제서림 | 제주 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2020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경남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고성의 대표사찰인 옥천사, 운흥사, 문수암, 장의사, 계승사를 돌아보며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와 문화에 빠져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

경남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일정

참가비 : 무료 문의 : 옥천사성보박물관 전화 055-673-4951

1차	09.12(토) - 13(일)	옥천사 → 계승사
2차	10.10(토) - 11(일)	옥천사 → 문수암 → 운흥사
3차	11.21(토) - 22(일)	옥천사 → 장의사

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장소 : 옥천사 경내 시간 :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09.12(토)	고성 근대불교와 5대 전통산사	이성수(불교신문 기자)
10.10(토)	고성 불교의 역사와 5대 전통산사	이종수(순천대 사학과 교수)
11.21(토)	고성 불교의 사상과 5대 전통산사	도법스님(남원 실상사 회주)

www.okcheo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고성군